



'이달의 시사 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와 관련교과, 참고자료, 지도법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이 이른바 '무역전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간 무역거래에서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상대국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무역전쟁'은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전쟁'과는 다르다. 하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를 고율로 부과하는 형태 등으로 나타나 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크게 요동칠 수도 있어 '충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미국발 무역전쟁은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우선주의'를 내걸며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그 당사국인 유례없는 상황 탓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1차로 맞부딪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2, 3차 무역전쟁으로 확대하며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배경은 무엇인지, 이에 따라 세계경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미국 방아쇠 당기자, 중국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이 먼저 당겼다. 지난 7월 6일, 미국 정부가 기계, 선박·부품, 항공·부품, 통신장비, 철도장비 등 818개 품목, 340억 달러(약 38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340억 달러 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로 160억 달러(약 17조 8800억원) 규모에 대해선 2주 안에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총 500억 달러(56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은 전자제품, 반도체·장비, 전기차 등의 중국이 육성 중인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도 즉각 반격했다. 미국과 동일한 3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보복관세 부과조치를 강행한 것.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의도를 띄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산 곡물, 돼지고기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중이 이렇게 무역 공방을 벌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제품을 첫 타깃으로 삼은 점을 근거로 들어 “첨단기술 제품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해온데다 2002년에는 148억달러(약16조 5400억원)였던 미국의 정보기술(IT) 분야 대중 무역 적자가 지난해 1510억 달러(약 169조 1800억원)까지 증가하자 적극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계경제는 ‘휘청’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총 500억 달러에 달하는 1차 관세부과 외에 추가로 5000억 달러(약 560조 원) 규모의 관세도 매기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중 무역전쟁이 50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면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미중 모두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 경제분석기관은 “미국의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내년 말까지 미국 내 일자리 14만 5000개가 사라지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34%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도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마찬가지.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1%에서 최대 0.3%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는 미국과 중국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트럼프 정부 들어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 보복 관세를 주고받은 데 이어 중국과도 무역전쟁을 본격화하자 유럽연합(EU), 러시아, 캐나다 등 주요국들도 일제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 EU는 철강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이 지난 3월, 유럽산 철강 제품에 관세부과 조치를 내리자 이에 맞대응한 것. 러시아도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보복 조치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도로 건설 및 석유 가스 산업 장비에 25~4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에 맞서 오렌지주스, 케첩, 위스키 등 50여 종의 미국산 제품에 10%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EU와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도 무역전쟁에 본격 가세한다면 세계 경제가 또 다시 ‘대공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면서 “대공황 당시에도 국제 무역량이 3분의 1로 줄어든바 있다”고 우려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은?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전문가들은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4.8%로 가장 높고, 미국은 1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기 때문. 특히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 중 부품과 같은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8.9%에 달하는데,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때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즉 중국이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TV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우리나라가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한 경제분석기관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내외 한 전문가는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다변화하거나 물량을 조절해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적 수준으로 확산될 것에 대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으로 대처하

고 틈새시장 진출기회 활용 등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려움을 겪을 수출 기업들이 당분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의 한 경제전문가는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춰주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생각해볼 문제

1.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갑자기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자.
2.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사해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②

12. 국제 경제와 세계화

사회②

13.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참고자료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지식노마드, 최윤식 저

지도법

경제적 패권을 얻기 위해 벌어지는 무역전쟁은 학생들에게 다소 낯선 개념입니다. 따라서 무역전쟁의 의미부터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널리 알려진 무역전쟁과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준다면 더욱 좋겠지요.

또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 제품, 특히 첨단기술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중국 역시 미국의 곡물·돼지고기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결정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입지를 흔들어 국제사회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 역시 숨어있음을 알려준다면, 학생들이 국제사회 정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대국들의 무역전쟁이 국제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특히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타격을 입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대처방안까지도 함께 조사해봅시다. 외교관, 경제학자 등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미래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경복 경기 별내중 수석교사